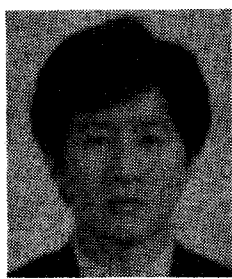


현대철학에 나타난 인간관

마시즘의 인간관 < III >



이 동 선

<국립평화연구소·연구원>

I. 서론

인간이 지속해 온 여러 형태의 지적 고민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은 항상 그 중심에 있어왔다. 그동안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여러 입장에서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가 특별히 현실성을 띠게 된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이다. 이는 사회적 제 과정의 가속적인 역동성, 사상 초유의 과학·기술상의 발전이라는 제조건에서 여러 문제가 극히 첨예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대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지적이며 실천적인 탐구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를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소련 및 동구의 변혁의 물결에서도 인간의 문제는 핵심이 되고 있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인간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인간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적어도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해 출판된 동구권과 변화는 그 폭과 변화의 다양성이 사회주의적인 일탈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지만 그 내면에 동력을 이루는 것을 살펴볼 때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태도와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오히려 두드러져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II. 마르크스주의 인간관의 성립과정

19세기 중엽 유럽 철학계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그것은 헤겔이 정립한 자립성을 잃어버린 모든 개별적인 존재의 원동적인 추상적인 보편성의 원리에 반하여, 살아있는 구체적인 인간의 현존이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반헤겔적인 조류 때문이다.

이러한 반헤겔적 조류는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키에르케고르로 대표되는 주관적 관념론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포이에르바흐를 중심으로 한 유물론적 입장이다.

19세기 전반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인간소외의 징후를 점차로 현실화시키고, 개인(인격)과 사회와의 모순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같은 당시의 브르조아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상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인간의 구체적' 현존에 대해 고민 하였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현존(실존)이라는 것은 인간을

사회적·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체질 즉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단독적인 개인의 종교적·미적 체험이라는 주관적 세계로서 이해하고 있다.

결국 키에르케고르 자신이 철학 대상으로 삼았던 구체적 현존은 사실 결코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었다.

포이에르바흐도 키에르케고르와 마찬가지로 그의 철학적 중심에 사람의 철학으로서 '살아있는 구체적인' 인간을 두었다.

포이에르바흐에 있어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의 통일과 구별 속에서 존재하고 신체를 가진 정신적이고·물리적인 존재이다. 포이에르바흐가 인간을 관념론적으로 해석하는 다양한 견해를 거부하고 인간의 근저로서 자연에 연관되어 파악 했지만, 인간에 관한 참된 과학적 이해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 원인은 우선 인간의 본질을 자연

적·물리적·생물학적 유의 대립으로만 파악되고 사회적인 제 연관과 제 조건의 담당자, 창조자로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에 의해 주장된 나와 너의 연관, 의존 및 통일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과학적 이해에 근거한 사회 제 관계의 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제 관계의 원리에 머물렀다.

여기서 포이에르바흐는 현실적이고 개별적이며 신체를 갖춘 인간에 관한 연구를 한결같이 호소 했지만, 이와같은 인간은 구체적인 사회 제 연관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 역사적인 인간이 아닌 추상적인 인간으로 해석하는 것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포이에르바흐가 현존하는 사회제도에 가졌던 도덕적 비난이 어느 정도 중요했지만, 그의 휴머니즘은 사회변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급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그 가능성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추상적, 비현실적인 것이

'사회·생산적인 활동'으로 존재의미 가진다고 규정 정신노동·육체노동 상호의 비적대적 불평등 규명못해

적, 정신·물리학적 기초로만 환원하려 했던 그의 인간학적 원리 그 자체의 한계성과 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약점과 한계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와 이 발전의 물질적 기반이 인간의 참된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포이에르바흐는 결국 이 참된 기초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 원인은 우선 인간의 본질을 자연

적·물리적·생물학적 유의 대립으로만 파악되고 사회적인 제 연관과 제 조건의 담당자, 창조자로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에 의해 주장된 나와 너의 연관, 의존 및 통일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과학적 이해에 근거한 사회 제 관계의 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제 관계의 원리에 머물렀다.

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III. 마르크스주의의 인간관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에서 논의되는 인간의 상을 올바르게 제시한다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적 토대위에 설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특히 역사적 유물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유물론이 얻어낸 가장 중요한 성과로서 이 역사적 유물론은 유물론을 인간사회와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이르기까지 수미관대하게 관찰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히 유물론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유물론은 인간이 정치, 과학, 예술, 종교 등에 관여하기 앞서 우선 자신의 물질적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하자면 먹고, 마시고, 자고, 입어야 한다는 단순한 통찰에 근거하여,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과정, 인간의-실천적인 삶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이념과 동기가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인간의 이념과 동기는 어떠한 물질적 이해관계에 표현하는가, 인간행위의 이념적 추진력의 배후에는 어떠한 물질적인 사회적 추진력이 은폐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역사적 유물론의 핵심

관의 특징을 살펴보자.

(1) 마르크스주의는 처음에 인간은 가장 본질적인 점에서 무엇에 의해 다른 모든 생물과 다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유적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들고 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 인간이 원래부터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인간이해가 인간을 자연적 존재로서 규정하는 포이에르바흐의 형이상학적 유물론에 입각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극복했음을 나타내주는 데이기도 하다. 이것은 인간을 자연과의 연관뿐 아니라 사회와의 연관에서도 분석할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또 인간을 물질운동의 생물학적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대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

(2) 인간은 물질적 생산수단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동물과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인간이 다른 생물과는 달리 단지 주위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그 창조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목적지향적인 행위에 의해 인간은 능동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그 자신도 변화한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에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말해 자기의 고유한 능력을 표현하고 이 능력의 도움



현대철학의 주요문제에 제기되고있는 인간존재의 의미와 세계와의 연관성등을 고찰, 현대철학의 사고영역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 I. 서양철학의 인간관·분석철학을 중심으로
- II. 중국철학의 인간관
- III. 마시즘의 인간관

인간활동의 다양한 발전이 사회적 인 것의 특성을 이룬다. 인간의 실천적 활동(노동)이아말로 인간에게는 사회적인 것의 본질이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적 발전의 도에서 실천의 힘을 통해 점점 자연의 일부로 부터 자연의 주인으로 변하고 자연을 인간 세계의 일부로 변화시킨다. 즉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인간화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생물학적인것은 사회적인 것과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5) 인간의 본질은 현실성에 있어서 모든 사회 제관계의 총체이다. 이것은 '포이에르바흐의 관한 태도'의 제배제이다. 이것은 아주 깊은 사상이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제로부터 많은 오해와 왜곡이 끊임없이 행해져 왔다. 이 태도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포이에르바흐가 인간을 단지 자연의 일부로 추상적으로 이해하였던 태도 반하여 인간을 사회적 본질로서 즉 사회적 제관계의 총체로서 이해한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사회관계에서 분리해 그 보편적 실체성을 탐구하는 인간학은 어불성설이며, 인간은 곧 사회관계의 총체임으로 인간을 다루어 도 결국은 사회적 인간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사회적인간이란 물질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경제적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을 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역사과학이란 인간에 대한 참다운 과학이라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인간의 해방 역시 필히

소외된 인간이 세계를 소유함에 있어 자신을 창조자로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가 인간에게 낯설은 것으로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는 그 내용이 비록 인간 자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에 대해 대상으로 존립하며 인간과 대립되는 그러한 세계이다.

소외의 본질은 사회적 분업의 결과 사회발전의 일정한 역사단계에서 인간활동의 생산물(노동 생산물, 화폐, 사회정치적 제도 등)이 자립적인 인간에게서 독립하고 역으로 인간을 지배하며 인간에게 적대적인 힘으로 변해 가는 데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인간을 사물로 변화시키고 사물의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개별성을 파괴하는 노동의 형식(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목표는 모든 인간에게 소외되지 않고 따라서 자유로운 활동을 복원시켜줌으로서 가능한 인간존재의 해방이었다. 아울러 사물의 생산이 아닌 인간 자체가 목적되는 사회, 인간이 더이상 기형적으로 왜곡되지 않는 사회, 인간적 본질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였다 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인간해방의 전제는 사회주의의 건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건설과정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일단 착취자와 피착취자간의 적대적 불평등적 대립을 철폐한 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불평등이 제거된 후의 사회, 인간적 본질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였다 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인간해방의 전제는 사회주의의 건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건설과정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일단 착취자와 피착취자간의 적대적 불평등적 대립을 철폐한 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불평등이 제거된 후의 사회, 인간적 본질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였다 는 점이다.

인간 개별성을 파괴하는 소외된 노동에서의 인간해방 시도

의 생활활동에 의해 현실화되는 것이다.

(4) 인간의 본질은 자연적인 구성요소와 사회적인 구성요소들의 변증법적인 통일이나 이 통일 속에서 결정적인 것은 사회 제 구성요소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자연사의 연장으로 본다. 자연사적 과정에서 무기물이 고도화하여 유기물이 출현하고 유기물이 고도화하여 인간이 출현한다고 본다. 그런데 고차적 운동형태로서의 사회생활은 역사적·물리학적·화학적·생물학적 운동 형태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그것들이 사회적인 것의 특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

의 생활활동에 의해 현실화되는 것이다.

(4) 인간의 본질은 자연적인 구성요소와 사회적인 구성요소들의 변증법적인 통일이나 이 통일 속에서 결정적인 것은 사회 제 구성요소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자연사의 연장으로 본다. 자연사적 과정에서 무기물이 고도화하여 유기물이 출현하고 유기물이 고도화하여 인간이 출현한다고 본다. 그런데 고차적 운동형태로서의 사회생활은 역사적·물리학적·화학적·생물학적 운동 형태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그것들이 사회적인 것의 특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

IV. 맺음말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점증하는 발전의 역사이며 그리고 동시에 증대하는 소외의 역사이다.



이것 불쌍하다!

그런데도 요즘 '우리'라든다. 슈퍼30조'나 '노앞에 몰아닥친 난제'를 해결 하느라 밖으로는 갖가지 코미디를 하심 는 물론이요 안으로는 못살겠다고 아우성치 는 농·어민들을 무마하랴 정신 없으실 높으 신 분께서 그런 불행까지 당하시다니.

아무래도 올해 그분의 운세에 망신살이 뻗었는가 보다...

이쯤 되면 무슨 얘기인지 눈치챌오리다. 다름 아니다. 지난 주 충남 공원에서 열렸던 제2회 전국 농·어민 후계자대회'에서 벌어진 불상사를 두고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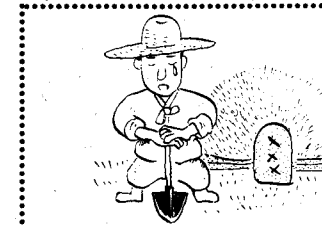
그러나 정작 불행하고 불통터지는 사람들 은 바로 가해자(?)인 농·어민들이다. 지금은 매주와 월차자를 수입해도 좋은 태 평한 시절이 아니고, 외제 술과 담배와 쇠 고기에 대한 입맛을 지체해야만하는 긴장된 시절이다. 재정을 털어 증권시장을 부추긴 다면 동시에 국고를 털어서라도 농업을 살 리어줄 절박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 데 오히려 현실을 보면 영 그제 아니다.

다행! 그나마 '오랜만에' 화성공에 얻 은 것이라곤 수입개방이며 도시농업자

농촌이 서야 나라가 산다

본에 의한 농·어민지배관계 그리고 좌절감 과 배신감 뿐이다'라고 한 첫머리 우리 농 촌의 현실은 파헤쳐는 낱알을 쓰기에 너 무나 심각하다.

한 농민의 약간 과장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농토까지 투기꾼 손으로 넘어가 이제 농민 은 도시사람들 묘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통탄할 만한 일은 다른 분야



에서는 손발이 척척맞는 미국과 유럽공동체 가 유독 농업문제에 관해서는 머리터지게 싸움을 벌이는 광경이 어찌 우리 관리를 눈 에는 보이지 않으며 야당과 농민 단체들까 지 끌어들이며 미국을 수입에는 일진불사의 결의를 굳히는 일본 정부의 소리가 어찌서 우리 관리들의 귀에 끼지는 들리지 않느냐

는 것이다. 미국의 지적대로 농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역마찰을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전가하는 그릇된 정치·경제구조에 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형성을 선도(?)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껏 보이는 그네들의 행 태를 보면 은근히 부아가 솟는다.

이런데 정부에서 '농어민연금제'를 발표 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다. 수입개방에 대하 여 다른 나라만큼 강하게 대응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농·어민 의 집회만큼은 허용해 주어야 했음에도 그 것마저 잡다한 이유로 무산시키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농·어민 연금제'를 통해 개방 으로 인한 손실을 보완해 주겠다고 부산 을 떨고 있다. 이른바 '부고와 악주기' 식이 다. 하지만 여지껏 우리 농민들은 병든 병 대로 받았지만 제대로 된 약재방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정녕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의 자격을 조금이라도 갖춘사람이라면 육 육 이 서야 나라가 서듯 농촌이 제대로 서야 나라의 경제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각 인해야 한다.

이상에 보았듯이 키에르케고 르도 포이에르바흐도 '역사적 현 실의 주체로서의 인간' 개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마르크스 는 인간에 대한 관념론적 학설과 형이상학적 유물론의 학설이 지 닌 결함과 단점을 극복하고, 변 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의 토대위에서 인간에 관한 과학

이라 하였다.

유물론에 따르면, 이념적 추 진력을 인간행위의 궁극적인 구 정인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념 적 추진력을 물질적인 추진력으로 소급하여 설명한다. 마르크스 이전의 부르조아 유물론은 이러 한 물질적인 추진력이 인간의 본 성 내에, 인간의 자연적이며 신 체적인 현존 내에 존재한다고 보 았다. 즉 그러한 유물론은 인간 의 의식적인 행위의 물질적 추진 력을 사회 내에서도 아니라 사회 밖에서 찾았다. 그러나 역사적 유물론이 인간의 의식적이며 목 적 정립적인(사회적)행위의 추진 력과 물질적 기초를 사회의 외부 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다시 말하면 목적 정립적인 행위의 현 실적 과정 내에서 발견했다는 것 은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 역사적 유물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 삶을 사회적으로 생 산하는 과정에서 자기와자신의 무관하게 일정한 필연적 관계에 편입된다. 즉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생 산관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과 정은 일종의 객관적이고 자연사 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유물론과 관 련하여 볼때 마르크스주의 철학 에서 파악한 인간이란 현실적이 고 구체적인 경제적·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지 추상적인 관 념으로 재단된 인간이 아닌 뚜렷 한 피와 육체를 가지고 구체적으 로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다.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의 인간

英字 The Korea Herald 直營

日刊紙 新聞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9월 3일

독 해 Korea Herald 사설, Time, Digest
영문해석 등 철저한 분석독해

회 화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American Stream-Line
민병철 생활영어, 미국인 회화

영작 어휘력, 친필력

기본영어문법연구,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입문~고급)
미국식교과서영어→기초영어완성→영어
실력기초→성문기본영어→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외대동시통역대학원 입학에 위한 1일
4시간 집중코스

일 어 일본어회화/박성원(일본~고급) SCREEN
회화, NHK 필름/동경일본어/비즈니스영어

제2외국어, 불, 중, 서, 한어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코리아헤럴드 외국어학원

시청각 영어회화 과정

◆ 제70기과정 모집 안내 ◆

개 강: 1990년 9월 5일

교육방법: American Streamline English와 Most extensive A/V program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회화과정.

반 편 성: 개인별 테스트후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반 12명내외로 편성.

●수준테스트는 매일2회 실시합니다 (11:30AM, 6:30PM)

교육과정: 1일 2시간 주5일(월~금) 수업, 기초부터 회고급까지 6개 수준 각 8주과정.

강 사 진: 미국 Harvard 대학출신 등 고 학력 수준의 전원 Native Speakers.

◆ 수업시간 ◆

7:00~8:45AM 10:00~12:00AM
5:00~7:00PM 6:00~8:00PM
7:00~9:00PM 8:00~10:00PM

●무엇을 영어 과정
●TOEFL종합반, 러시아어
●한국말 (Korean Language Courses)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입구 756-7711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개강 9월3일

영 어·일 어 러 시 아 어
TOEFL600
GRE2000
GMAT700

종각역·종로2가 734-2442

시사영어학원

군·행정병 모집

육군참모총장위촉처

- 타자 행정병
- 매일 1회 단독입영
- 상급부대 행정병으로 복무

735-2323
735-9716

유니타자학원

女事務

秘 塔 經 書 理 0.A

워드프로세스
여상·여고·초·대졸
단기교육 책임취임
(재학생 수강료할인)

732-3375

영어회화 정복의 MECCA

ELS 자매학원

Si-sa ECC

영어회화 전문코스

English Conversation Center

교수진 전원 미국인 Native Speakers
전강의실 첨단 Video/Audio 교육요새화

●1일 2시간·주 5일·4주 단위 수업
●집중코스는 강남 ELS, 회화전문코스는 강북 ECC
●Tuition은 일반학원 수준, 교육의 질은 국내 정상급
●다양한 학습 서비스, 풍부한 학습 편의시설과 공간

ECC Session Calendar

코스	개강일	종료일
제34기	9월 17일	9월 30일부터
제35기	10월 22일	10월 31일부터

●미국 Language School과 같은 학습 분위기
등록장소: Si-sa ECC 입학안내실 (파고다 공영 맞은편 시사영어사 빌딩 3층)

(주)시사영어사 부설

Si-sa ECC

강북 시사영어사 외국어학원

상담전화: (277)6812~4